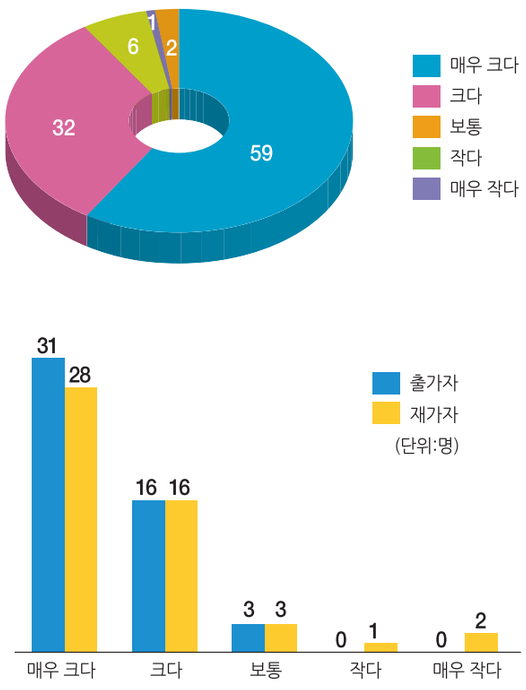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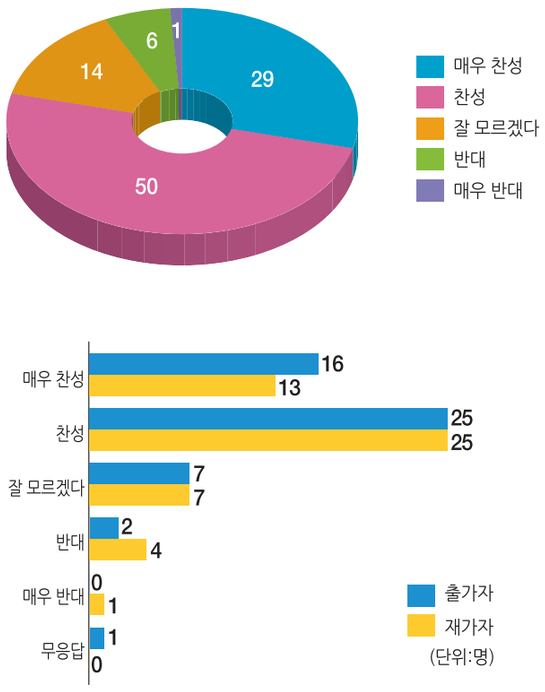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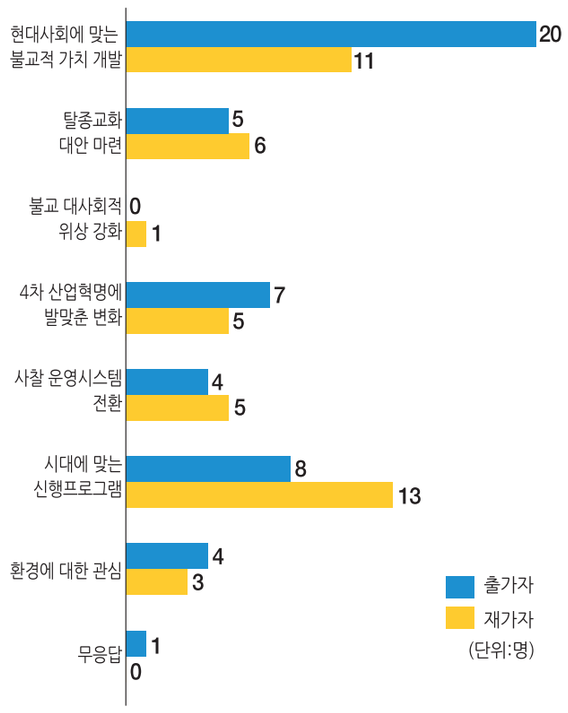


〈코로나가 종단 · 사찰 재정에 미친 영향〉



〈회원제 · 정기납부 시스템 전환〉



〈코로나 사태가 던진 화두〉

사찰 정기납부시스템엔 79% 찬성

종단 · 사찰 재정문제 심각성 인식
"코로나로 재정에 영향 크다" 91%
산문폐쇄 · 법회 중단에 따른 여파

안정적 재원수급 위한 대안으로
신도회원제 · 정기납부 도입 관련
응답자의 79%가 찬성 입장 밝혀

가르침을 젊은 세대에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포교 전략과 콘텐츠 다양성의 부재를 미비점으로 꼽았다.

B스님은 "종교적 공간에서 신행적 교감을 통해 신심을 가지는 기존 신도들의 경우, 온라인 법회 등 단순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방식만 전환하는 것은 만족도도 낮고 효과도 적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포교방식이 기존신도와 대중들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단순히 시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에 맞는 포교전략 고민과 컨텐츠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을 중심으로 도심사찰이나 규모가 큰 사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신도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사찰 간 편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종단 차원의 컨텐츠 개발 및 제공, 프로그램과 기술에 대한 교육 · 안내 없이 각 사찰의 원력과 상황에 맡기다보니 그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A스님은 "사찰 간 신도연령의 차이도 있지만 사찰 여건상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고 방법을 몰라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종단 차원의 포교전략이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사찰들이 파생적으로 비대면 소통을 시도하다보니 사찰간 격차가 크고 컨텐츠 다양성이나 퀄리티도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포교방식서 주력분야는?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이 온라인법회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방식 가운데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불교문화콘텐츠(32%)와 주요법회 생중계(21%)를 꼽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사찰의 비대면 소통방식 증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과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문항에서 출가그룹과 재가그룹이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전체 1위로 나타난 '불교문화콘텐츠' 항목의 경우 재가그룹 40%의 지지를 받아 1위로 집계된 반면, 출가그룹에서 이를 선택한 비율은 24%에 그쳐 3위로 나타났다. 또 출가그룹의 경우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주요법회 생중계(30%)를 꼽았으나 재가그룹은 12%만이 이를 선택했다.

이는 재가그룹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출가그룹은 기본 대면 형태의 신행활동의 비대면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 가운데 3위로 집계된 명상수행(17%)도 출 · 재가그룹의 인식차가 컸다. 재가그룹에서 명상수행을 주력분야로 꼽은 비율은 8%로 5위에 그친 반면, 출가그룹은 26%가 이를 선택해 2위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출가그룹은 주요법회 생중계와 명상법문 등 불교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재가그룹은 불교문화콘텐츠와 스님 법문 등 불교대중화와 전법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 재정에 미친 영향과 대안

코로나 사태 이후 종단과 사찰재정도 큰 변화를 맞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반년 넘게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불교계는 올 3월경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종단 지침에 따라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오신날을 연기하고 법요식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행사까지 전면 취소하는 등의 결단을 내렸다. 이 시기 전국 사찰에 불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기도비와 보시금이 급감해 사찰운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응답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불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로 종단과 사찰 재정을 두 번째로 꼽았을 뿐 아니라, 영향의 정도를 묻는 세부질문에서 '크다' 고 답한 비율이 91%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크다' 를 선택한 비율도 59%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불교계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작다' 를 선택한 비율은 7%, 무응답은 2%로 집계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불교 오피니언 리더의 상당수가 사찰재정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도회원제 운영이나 CMS를 활용한 기도비 · 보시금의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설문 문항 중 신도회원제와 정기납부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79%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찬성은 29%, 찬성이 50%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한다' 는 답을 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사찰 재정 안정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 등으로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바쁜 현대인들이 사찰에 오지 않아도 신도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사찰 입장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으로 포교 및 사찰 운영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한다' 를 꼽은 응답자들 중에서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대면 형태의 신행활동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C스님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대면 소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람수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보시와 공양 또한 신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이 사찰에 더 오지 않게 된다면 자칫 보시와 기도를 교환하는 거래성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법회의 질을 높이거나 대면 형태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찰과 스님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14%, '반대' 는 6%, '매우 반대' 도 1%로 나타나 총 21%의 응답자는 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유로는 "기도비와 보시금도 신행의 일부"이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찰운영에는 이점이지만 사찰 본연의 역할과 종교적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인

(무순)

▲출가그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목우선원장 인경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만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종회의원 혜일 스님, 종회의원 현민 스님, 종회의원 만당 스님, 종회의원 호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해인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원상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비구니연구소장 수경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정관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정현 스님, 광림사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혜도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유승 스님, 은유와비유 대표 명법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

▲재가그룹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황순일 동국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장재진 동명대 교수, 이화행 동명대 교수,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윤재웅 동국대 국어국문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 고영섭 동국대 교수, 홍승기 석탑경영포럼 대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홍정근 말고향기롭게 사무국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 조한곤 파라미타 사무국장, 박영동전 교법사,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대표,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안병권 조계종 6교구 신도회장, 이연화 조계종 10교구 신도회장, 이근재 조계종 17교구 신도회장, 이원욱 국회의원,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 김행규 교정인불자연합회장,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김성규 교수불자연합회장, 김화연 교사불자연합회장, 유재환 병원불자연합회장,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용석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홍경희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김성림 국제포교사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이종현 동산반야회 이사장,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

"전화위복…새로운 아젠다 필요한 시점"

불교계 향한 각계 제언

"불교 본질에 주목해야"
중생구제 · 생명존중 강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불교계 내부에서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코로나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이다. 본지는 코로나 이후 불교계 내부 인식을 파악할 기초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설문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술항목을 추가해 불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문에 참여한 100명의 불교 오피니언 리더 가운데, 해당 문항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79명. 일정한 형태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대중에게 알려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로 귀결됐다.

특히 상당수가 '전화위복,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는 입장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통에 머물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던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 만큼, 소극적으로 그 변화에 따라가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성과 실천 항목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F 스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종단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인 불교가 우리사회에 닥친 우울과 고통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 스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종단 시스템 개선 및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가 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본질인 중생제도에 대한 굳은 신념이 그 토대이자 목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렵고 딱딱한 가르침보다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답할 수 있는 불교교리가 필요하다"거나 "개개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야 한다" "종교를 떠나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대표적이다.

수행과 포교가 이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포교나 사찰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스님들이 사찰에 앉아 기도하면서 신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옛 방식보다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포교 · 전법단체나 전문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며 적극적인 포교 행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안 제시, 종단과 본 · 말사 등 사찰간 재정구조 개선, 포교 · 신행 확산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전염병 등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 · 실천적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제는 불교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 & 불교